

승산 선사가 한국불교계에 남긴 과제는?

승산 행원의 생애와 사상

최용운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 7천원



한국불교에서 전 세계에 가장 널리 우리 불교를 알린 사람은 누구일까? 제일 먼저 승산행원 선사(사진)를 꼽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승산 선사는 1966년 재일 흥법원 설립을 시작으로 35년여 동안 전세계 32개국에 120여 선센터를 개설했으며, 5만여 명이 넘는 해외 제자들을 배출한 큰 위업을 남겼다. 하지만 그간 승산선사에 대한 한국불교계의 반응은 다소 미온적이었을 뿐 아니라, 선사의 수행론 및 조직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적 기류마저 감돌았던 것이 사실이다. 승산선사가 개발한 간화선 수행체계, 일명 '십문론' 이 일본 임제종의 참선 수행체계를 수용했다는 점, 선 센터 내 조직 운영에 남녀차별, 출재가의 구분 없었었다는 점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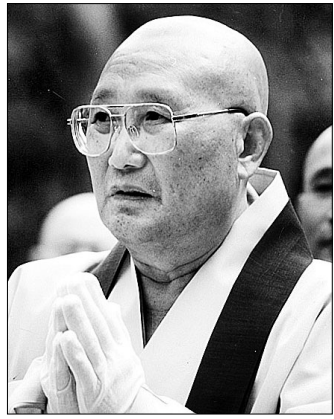
이 책은 승산선사 수행론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기반으로 선사가 개발한 간화선 수행체계와 일본 임제종의 참선 수행체계 간의 연관성을 비교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승산선사의 간화선 수행체계 개발의 의의에 대한 저자만의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또한 선사의 업적이 현대 한국불교의 포교 역사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국내외적 측면에서 설명한다. 이와 함께 이 책은 간화

선의 한반도 도래 이후 수행법의 변천 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서구사회에 불교가 전파된 역사적 과정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간화선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도 제안한다. 그리고 한국 간화선의 대중화·세계화 과제와 관련해 승산선사의 행적이 갖는 의미와 선사가 한국불교계에 주는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이 책은 세 가지 문제의식이 근간을 형성한다. 그 첫 번째는 승산선사에 대한 국내 불교계의 평가가 적절한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불교계에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이론적 토대가 형성됐는가에 대한 것이다. 간화선의 대중화를 천명하지만, 정작 현실은 간화선이라는 수행법이 과연 대중화가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한국 간화선 세계화를 위해 수행법의 개선이 필요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책은 총 6장으로 나눠 승산선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제 1장 '승산행원의 선사상과 수행론'에서는 먼저 승산이 활동한 시기의 시대적·사상적 배경을 고찰하고, 이어서 승산 선사상의 특징을 다룬다. 승산선사는 경허선사의 법맥인 덕숭종의 조사선, 특히 간화선을 중심으로 하면서 '오직 모를 뿐'이라는 유희화론을 역설한 데 그 사상적 특징을 드러낸다. 아울러 선의 실천성과 세계화를 강조한다. 이를 위해 일본 임제종의 수행체계를 상당 부분 도입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방편으로서였다.

제 2장 '승산행원의 업적에 대한 포교적



35년간 32개국에 120여 선센터 개설 승산선사 간화선 수행론 체계 분석 간화선 세계화 위한 제언도 수록

관점의 연구'에서는 대중포교, 나아가 세계포교를 위한 승산의 활동을 시기별로 나눠 고찰한다. 여기에는 승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으로 동국대 석림회의 창립 지원, 화계사를 대중포교와 국제포교의 중심지로 한 점, 불교 언론으로서의 불교신문의 토대 확립, 그리고 관음선종의 창립과 이를 토대로 한 세계포교 등이 포함된다. 제 3장 '한국 간화선의 대중화를 위한 이론적 기반 정립'에서는 먼저 간화선 창시자라 할 수 있는 대혜종교의 간화선을 시대적·사상적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고찰한 다음, 보조지눌의 간화선이 지닌 특징을 짚어보고, 한국불교계서 간화선 수행과정의 지닌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제 4장 '한국

간화선 수행법의 변천사'에서는 먼저 한국 간화선의 수행법적 정체성 확립을 제안하면서, 한국에 간화선이 어떤 배경과 경로를 통해 수용되고 실천됐는가를 역사적으로 고찰한다. 여기에는 고려 후기 몽산덕이의 간화선 도입과 특징, 그리고 여말삼사에 의한 간화선 수용, 고봉원묘의(선요)가 한국 간화선 수행법에 변화를 준 상황 등이 포함돼 있다.

제 5장 '한국 간화선의 세계화를 위한 제언'에서는 19세기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구, 특히 유럽에서 불교가 수용된 상황을 시기별로 면밀히 고찰한 뒤, 유럽의 불교수용 맥락서 분석한 한국 간화선의 장점과 문제점을 다룬다. 그리고 문제점의 개선방향을 위한 기반으로 동국대 석림회의 창립 지원, 화계사를 대중포교와 국제포교의 중심지로 한 점, 불교 언론으로서의 불교신문의 토대 확립, 그리고 관음선종의 창립과 이를 토대로 한 세계포교 등이 포함된다. 제 3장 '한국 간화선의 대중화를 위한 이론적 기반 정립'에서는 먼저 간화선 창시자라 할 수 있는 대혜종교의 간화선을 시대적·사상적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고찰한 다음, 보조지눌의 간화선이 지닌 특징을 짚어보고, 한국불교계서 간화선 수행과정의 지닌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제 4장 '한국

마지막으로 제 6장 '한국 간화선의 대중화·세계화와 승산행원 선사가 한국불교계에 남긴 과제' 편에서는 한국 간화선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한국 간화선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승산선사가 대중포교와 세계포교에 성공적으로 활용한 방법들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며, 아울러 승산 선사가 시도한 방법들에 대해 대승적이고 통불교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승산선사의 사상과 수행, 그리고 포교방법을 다룬 이 책은 한국 간화선 대중화와 세계화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책일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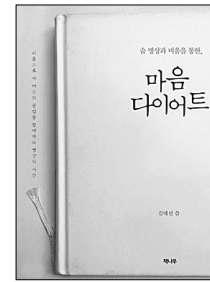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명상과 비움으로 마음의 균살 뺀다

숨 명상 통한 마음다이어트법 제시

마음 다이어트

김대선 지음 | 책나무 펴냄 | 1만 4천원



우리는 몸의 작은 상처에는 호들갑을 부리지만 정작 마음의 상처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마음도 몸과 마찬가지로 상처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환기 시켜주지 않으면,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 노폐물로 쌓이고 이것은 감정 비만의 원인이 된다. 육체적인 비만과 달리 감정의 비만은 잡념의 산물인 탁한 기운이 몸 구석구석에 쌓여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간 지속되면 질병으로 나타난다. 지식, 돈, 음식, 권력 등 채우는 방법만 배우고 살아가는 삶으로 인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잡념과 욕심을 비우는 일에는 주저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무언가로 마음을 채우는 것만큼 깨끗하게 비워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때문에 저자는 숨 명상을 통한 마음다이어트의 방법을 제시한다.

“자세 바르게 취해 깊은 호흡하라” 감정장애물 떨치면 생각 올바르게 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마음 운동법이다. 또한 마음의 균살을 빼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다. 인도와 서양을 통해 들어온 명상의 이론이 아닌, 우리 문화에 녹아 있는 수련의 흔적으로 명상의 필요성을 찾는 이 책은 전문적이지 않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설명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올바른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천년의 지혜를 천년의 미래로 보내는 일”

팔만대장경 지킴이故 성안스님 1주기 추모집

대장경 천년의 지혜를 꽃피우다

성안 스님을 그리며 사람들 지음 라이프림 펴냄 | 1만 3천원



평소 팔만대장경을 수호하고, 연구·보존하는 데 앞장서 온 성안 스님의 생전 글을 모았다. 지난해 4월 88고 속도로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입적한 성안 스님이 떠나고 벌써 1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월은 이미 가벼운 이의 행상을 지우지만, 바람은 또 다시 성안스님의 향기를 몰고 와 남은 이들의 그리움을 더 크게 한다.

이 책은 일찍이 고려시대 의천스님이 말씀대로 “대장경 편찬은 천년의 지혜를 천년의 미래로 보내는 일”을 받아 그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한 성안 스님의 글들을 담았다. 고려인들이 그 이전 천년의 지식과 기술을 모아 천년 후의 우리에게 보낸 대장경을 연구하며, 앞으로 천년 후 미래의 후손들에게 전하려는 성안스님의 노력이 오롯이 녹아있다. 성안 스님이 생

전에 출가와 사찰 생활, 팔만대장경에 얽힌 이야기를 적은 글과 선후배, 도반들의 추모 글을 모았다. 그 참어 인원만 23명에 달한다.

천주교 집안서 태어난 성안 스님은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해인사로 출가했다. 스님은 외국인들에게 해인사를 더 잘 설명하고 알려고 영어를 배우러 미국도 갔다왔다. 2011년부터 해인사 팔만대장경 보존국장을 맡아 원력을 펼쳐왔다.

성안 스님, 지난해 교통사고로 입적 선후배, 도반 등 23명 추모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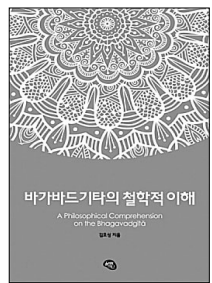
지인들의 글들은 스님을 생생히 재조명한다. 해인사 승가대학장 원철 스님은 “벗으로 삼을 만한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삼익우(三益友)였다. 정직했고, 믿음직했고, 견문이 넓은 사람”이라고 평했다. 종현 스님도 대장경 보존후원 회원 1만명을 모집한 성안 스님을 '대장경 영영 사원'이라는 위트있는 말로 회고했다. 모두들 그리워 했다. 글 속에 물신 풍겨나. 그 그리움들이.

김주일 기자

<바가바드기타> ‘삼가해’ 시도...“<기타>는 사유의 동반자”

바가바드기타의 철학적 이해

김호성 지음 | 올리브그린 펴냄 | 2만 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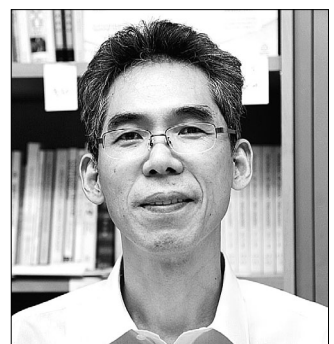
인도 성전 <바가바드기타>(이하 '기타'로 약칭함)에 대해 삼가해(三家解)를 시도한 동국대 김호성 교수(사진)의 <바가바드기타의 철학적 이해>가 출간됐다.

<기타>는 원전이나 주석서의 번역물로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 오래 됐지만, 학계의 형편은 다르다. <기타>를 중요 주제로 삼아서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드물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것은, 인도 철학이나 종교 연구자라면 <기타>에 대한 논문 1편은 쓴다는 점이다. 저자 김호성 교수에게 <기타>란 '사유의 동반자'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나의 철학(=자기 철학)을 형성해 감에 있어서 <기타>의 논의들을 하나의 소재로서 활용해 간다. 자주 반주(反奏)하는 철학적 테마 상당수는 <기타>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철학적 테마를 놓지 않는 한, <기타>에 대한 나의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저자는 상카라(Sankara, 700~750)나 틸락(Tilak, 1856~1920)과 같은 주석가들 역시 그렇게 자기 철학을 형성해 감에 있어서 <기타>를 마음껏 활용한 것은 아닌가라며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지고, '삼가해(三家解)'의 서막을 열었다.

저자에 따르면 해석이란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각각의 해석에는 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틀새가 바로 <기타> 주석가들이 주목하는 지점(地點)이고, 이로 인해 해석의 차이(差異, 差移)가 생겨난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저자에게 '틈새' '지점'은 바로 '해석의 차이'인 셈이다. 상카라가 본 <기타>가 다르고, 틸락이 읽은 <기타>가 다르며, 저자가 생각하는 <기타> 역시 다르다. 이런 '다름'이 비판을 낳았다. 틸락은 상카라를 비판하고, 저자는 틸락과 상카라 모두를 비판한다.

그럼 세 명의 주석가들에게 <기타>의 주제란 무엇일까요? 저자는 말한다. “상카라에게는 지혜의 길입니다. 행위를 통해 지혜

를 얻는다거나 해탈을 얻을 수 없습니다. 행위는 해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으며, 지혜를 얻기 위한 간접적 원인으로 밖에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탈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위를 버리고 출가해 산나시(포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해탈을 얻은 뒤에든 굳이 행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틸락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카라가 말하는 포기자의 길은 곧 출가주의를 찬양하고 있는데, 잘못입니다. <기타>서 말하는 포기는 내적인 욕망의 포기이지 행위 그 자체의 포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틸락에게 <기타>는 행위의 길 하나를 말하는 텍스트입니다.”

저자는 두 선대 주석가 모두를 비판한다. 지혜의 길 하나만을 설하는 것으로 보는 상카라의 관점은 잘못이라는 틸락의 비판은 타당하다. 그러나 틸락의 관점 역시 문제가 있다. 믿음의 길을 배제하고서 행위의 길 하나만을 설한다는 관점은 잘못이기 때문이다. 행위의 길을 중시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은 다시 지혜나 믿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기타>에는 제시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주일 기자

[지리산다슬기 진골드]

지리산과 덕유산일대의 자연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1개 월/60팩



80ml*60팩 (1BOX) 산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제품문의 (02)879 - 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125,000원 (무료배송)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